

새로 나온 책

##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만나는 사람들

2017년 맨부커상 수상작. 소설은 링컨 대통령이 어린 이들을 잃은 후 무덤에 찾아가 아이들의 시신을 안고 오열했다는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 소설가 손더스는 워싱턴을 방문했다가 지인에게서 링컨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링컨의 셋째 아들 윌리가 장티푸스에 걸려 열한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세상을 뜨자 비탄에 잠긴 링컨이 몇 번이나 납골묘에 들어가 아이의 시신을 꺼내 안고 오열했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손더스는 머릿속에 링컨기념관과 피에타가 합쳐진 이미지를 떠올렸다. 이 이미지는 소설의 출발점이 됐다.

‘바르도’는 ‘이승과 저승 사이’, ‘세계의 사이’를 뜻하는 티베트 불교 용어로 죽은 이들이 이승을 떠나 저세상으로 가기 전 머물러 있는 시공간을 가리킨다. 소설은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윌리 링컨과 바르도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의 대화로 서사를 이끌어가는 독특한 형식으로 구성됐다.

바르도에 있는 40여 명의 영혼이 각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링컨과 그 시대에 관한 책



**바르도의 링컨**

조지 손더스 지음/정영목 옮김/문학동네

과 서간문, 신문 등에서 인용한 문장들로 이뤄진 챗봇이 책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다.

소설의 묘미는 ‘바르도’를 떠도는 영혼들이 저마다 가진 매듭을 풀면서 삶에 대한 미련과 슬픔, 분노와 집착을 털어내고 진정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영혼들은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둘 진정한 죽음의 세계로 향한다. 손더스는 죽은 영혼들의 목소리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간의 존재 조건에 대해 탐구하게 한다. 500쪽. 1만5800원.

/김현정기자 hjk1@

**떨림과 울림**

김상욱 지음/동아시아



우리의 몸, 발을 딛고 선 땅과 흙, 매일 마주하는 노트북 모니터와 휴대전화까지.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단위로 이뤄져 있다. 우리의 손가락 끝에 있는 탄소 원자는 우주를 떠돌다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에 내려앉았다. 이후 시아노박테리아와 이산화탄소, 트라케라톱스, 사자를 거쳐 몸에 들어와 포도당의 일부로 몸속을 떠돈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은 단지 원자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과정이다. 물리학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세계를 소개한다. 272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수면의 과학**

사쿠라이 다케시 지음/장재순 옮김/윌유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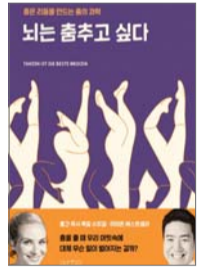


랜드 가드너는 264시간(11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아 최장기간의 불면 기록을 세웠다. 랜드 가드너에 따르면, 단면 2일째에는 신경이 예민해지고 기억장애가 발생한다. 4일째에는 망상이 나타나고, 7일째에는 언어장애가 생긴다. 도전을 마친 그는 15시간을 내리자고 평소 생활 리듬을 찾게 됐다. 책은 불면증, 몽유병과 같은 수면 관련 질환의 원인, 해결방법 등 잠에 관한 모든 것을 파헤친다. 336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뇌는 춤추고 싶다**

장동선·줄리아 F. 크리스텐슨 지음/정영용 옮김/아르테



“만병통치약인 춤, 왜 안 추는 거죠?” 뇌과학자 장동선과 신경과학자 줄리아 F. 크리스텐슨이 의기투합해 사람들을 모두 춤추게 할 유쾌한 결과물을 세상에 내놨다. 근육의 움직임은 뇌의 신경회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춤을 추면 뇌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다양한 감각들이 수용되며, 근육의 움직임과 관련된 작용이 강화된다. 춤은 몸속의 작은 기적을 일으킨다. “자, 이제 모두 일어나 춤을 추자!” 416쪽. 1만7000원.

/김현정 기자

# 겨울 준비는 백화점서... 세일임박

**롯데백화점**

400억 물량 24만 상품 80% 할인

**현대백화점**

200여 해외브랜드 F/W시즌오프

**신세계백화점**

인기 브랜드 엄선해 갈라쇼 진행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 등 국내 주요 백화점이 고객의 소비심리에 불을 지핀다. 이달 중순부터 일제히 겨울 정기 세일에 돌입하며 11월 쇼핑 열기를 이어가는 것.

**◆롯데백, 400억 물량 최대 80% 할인**

롯데백화점은 오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18일간 겨울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세일에서는 전년보다 10%가 증가된 총 88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400억 물량, 24만개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한다.

먼저 파트너사와 함께 공동/대량 기획한 상품들을 정가가 대비 최대 8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는 ‘블랙 라벨 상품전’을 마련했다. 롯데백화점이 선보인 롱패딩, 롱베스트 등 직매입 상품들은 소진율이 이미 50%가 넘어 11월 내 모두 완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블랙라벨’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밀레 안젤로 벤치파카’, ‘블랙야크 L메테오 벤치파카’, ‘네파키즈 스웨터’가 있다.

합리적인 가격에 1+1 상품을 선보이는 ‘블랙 패키지’ 상품전도 진행한다. ‘블랙 패키지’ 상품은 상품 하나의 가격에 두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세일을 위해 롯데백화점이 직접 기획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테팔’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조리도구 5종 세트 + 인덕션 겸용 30cm 워’이다. 브랜드 ‘우드워’에서 선보이는 ‘캔들+디퓨저’ 세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구매금액대별 감사품 증정 및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대백, F/W 시즌 오프·이월 상품 할인**

현대백화점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15개 전 점포에서 겨울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의류·잡화·리빙·아동 등 전 상품군에서 지난 겨울 세일보다 100여 개 많은 8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할인율은 10~50% 수준이다. 패딩·코트 등 겨울 아우터 물량



본점 매장에서 겨울 세일 상품을 고르는 모습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겨울정기세일대표이미지 /현대백화점

을 브랜드별로 지난해보다 최대 20% 이상 늘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16~18일 3일간 현대백화점카드 사은 혜택을 강화한 ‘블랙위크엔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의류·잡화·리빙 상품군에서 앤디앤엠·노스 페이스·시슬리 등 300여 개 브랜드를 선정해, 현대백화점카드 2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기존(5%)보다 1.5배 높은 구매금액대별 7.5%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세일 기간, 200여 개 해외 패션 브랜드가 참여하는 가을·겨울 상품 시즌 오프도 진행한다. 남녀 수입의류, 컨템포러리, 잡화 등 올해 가을·겨울 시즌 상품을 정가가 대비 10~50% 할인 판매한다.

**◆신세계백, 명품 시즌오프로 소비심리 공략**

신세계백화점은 2030 젊은층을 겨냥한 명품 할인 행사를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에서 ‘명품 갈라쇼’를 준비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명품을 구매하면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S머니를 구매금액의 최대 20%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는 행사다. 기존 10% 수준 S머니 적립을 2배로 올려 온라인 명품 매출



SK2 갈라쇼

/신세계백화점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에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를 엄선해 하루에 한 브랜드씩 갈라쇼를 진행한다. 19일부터 1주일간 SK-II, 바비브라운, 록시팡, 조르지오아르마니 명품 화장품을 시작으로 26일부터는 구찌, 버버리, 몽블랑, 코치, 론진 명품 잡화까지 가세한다.

불황에도 명품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 명품 매출신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명품 매출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영고객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명품 매출 신장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매장에서 대규모 명품 시즌 오프가 진행된다. 신세계백화점에서는 본점, 강남점, 센텀시티점, 대구신세계 등 주요 점포에서 총 3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해외 유명 브랜드 시즌오프를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올해의 ‘아름다운 숲’ 명소, 통도사 무풍한솔길

경남 양산 통도사의 무풍한솔길이 2018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뽑혔다.

강원 인제 백두대간 트레일 6구간, 제주 서귀포 머체왓숲길 등도 아름다운 숲에 이름을 올렸다.

유한김별리는 산림청, 생명의 숲과 함께 올해로 18회를 맞는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를 열고 전국에서 추천받은 50개 숲 가운데 서류심사와 온라인 시민투표, 현장 심사를 통해 생명상 1개소, 공존상 4개소, 누리상 1개소, 숲지기상 1개소 부문으로 총 7곳의 아름다운 숲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인 ‘생명상’을 받은 통도사 무풍한솔길은 우리나라 3대 사찰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통도사의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잘 보존되어 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령 100~

200년의 노송들이 구불구불 서 있고, 울창한 노송이 만들어 주는 푸르름과 서늘함이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숲이다.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흙길로 조성해 자연스러움을 지켜냈으며 생태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높음으로 평가받았다.

또 ‘공존상’으로는 강원도 인제군 백두대간 트레일 6구간, 제주 서귀포시 머체왓숲길, 제주 서귀포시 화순 꽃자왈, 전남 진도군 점도 남망산숲길이 각각 선정됐다. 이외에 ‘누리상’은 부산 대산공원 편백숲, ‘숲지기상’은 경남 함안군 삼림숲이 각각 뽑혔다.

2000년 처음 시작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는 올해까지 총 252곳의 아름다운 숲을 발굴해 보존 문화 확산에 기여해 오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경남 양산 통도사 무풍한솔길.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해바라기**

살아가며 서로 삶의 어두운길 비추라며 가을이 당신께 선물하는 하늘의 조명

/고홍근 작